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거요구

Housing Need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e of House Wiv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윤정숙

박사과정 김수경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Chung-sook Yoon

Doctoral course : Soo-kyung Kim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조사 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housing needs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A questionnaire survey including 25 questions was done in 90 employed wives and 101 unemployed wives living in Seoul.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housing needs for children(educational institute, and community facilities) were high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The needs for the socialization facilities of household work were low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The employed wives who have only limited time did not want 24 hours market which is not different from unemployed wives.
- 2) Unemployed wives wanted larger housing spaces than employed wives did. Unemployed wives put much more value on kitchen size and design. Employed wives considered space for family such as living room and dining room more important than private spac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거주자의 주생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 중 하나가 기혼 여성의 취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이다. 1995년의 경우 전체가구의 77.5%를 차지하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족은 31.6%를 차지하였다(통계청, 1995년 2% 표본조사).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48.3%이었으며, 이 중 74.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1996). 여성 취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54.5%가 취업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1997).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달리 제한된 시간 내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갈등을 경험하며,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노동시간을 보충하게 된다(문숙재, 1996). 이로 인해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과 생활내용은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전통적인 주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제품이나 사회시설이 용이하지 않고, 대체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문숙재·김혜연, 1995)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는 낮은 실정이며, 취업주부는 가정생활시간 중 많은 부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게 되므로 가족들과의 여가나 정신적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직장생활 시간 동안은 자녀를 돌볼 수 없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주부가 가사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가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취업주부의 제한된 가정생활시간동안 가족과의 교류를 도와주는 주거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조건과 주거공간계획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주부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주생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주거지역환경과 거주자의 생활특성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주거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특성과 주거요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거지역과 지역시설에 대한 요구를 비교·분석한다.
- 2)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택규모와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를 비교·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부의 취업유무와 생활구조

생활시간사용의 비교를 통해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구조를 밝힌 두경자(1995)의 연구에서 생리적 시간은 전업주부 10시간 43분, 취업주부 7시간 26분으로 조사되었다. 가사노동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 평균 8시간 58분, 취업주부의 경우는 5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는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내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개인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시간부족과 시간계약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주부는 생리적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보이며, 가사일에 있어서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사노동의 기계화, 분담화, 계통화, 간략화, 사회화 등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채옥희, 1997).

전업주부가 평일에 가사노동량이 많은 반면, 취업주부는 휴일에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취업주부의 휴일은 일주일간의 밀반찬을 준비하거나 가족원을 보살피고, 장을 보거나 쇼핑하는 등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한경미, 1991),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두경자, 1995).

또한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해 시간의 여유는 있지만 평균 여가시간은 매우 적으며(문숙재, 1996), 적극적인 여가행동보다 TV 시청이나 음악감상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 행동 유형을 보였다(임정빈·임혜경, 1992).

2. 주부의 취업유무와 주거요구

주거요구란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말하며(강순주·김상희, 1998), 주거 단위환경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주거단지 및 지역에 대한 요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주거지 위치

기혼 여성은 가정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남성보다 주거지와 직장과의 거리가 더 짧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Janice Fanning Madden, 1981; 백신희, 1993)

김선경(1993)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이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연자와의 거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거주지 선택 이유로 시댁, 친정과의 거리에 대한 이유가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2.1%가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탁아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1-3세 탁아의 경우, 혈연자에 의해 양육될 때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정희, 1994). 취업모가 원하는 탁아기관의 형태는 0-3세의 경우 직장탁아와 가정탁아를 선호했으나, 4-6세에서는 직장탁아와 유치원 및 유아원 중일반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장영애, 1996), 단순한 탁아의 차원보다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통근 현황을 보면, 외벌이 남편이나 외벌이 부인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고 이들의 적지 않은 수가 주거지와 일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주거지역의 위치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족의 평균통근 시간은 남성 49분, 여성 42분이며 이에 비해 도심에 거주하면서 부부의 직장이 모두 도심에 입지한 가계는 통근시간이 24-5분 내외로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 표본의 80%의 맞벌이 가구가 주거를 비중심지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명진, 1996).

통근수단을 보면, 남편의 경우 외벌이나 맞벌이 모두 승용차가 주요 통근수단으로 나타나 맞벌이 남편은 41.3%, 외벌이 남편은 48.4%가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다. 이에 비해 부인들은 모두 도보로만 통근하는 경우가 맞벌이 33.3%, 외벌이 3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외벌이 부인은 40.2%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인 역시 도보 다음으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28.4%로 많지만 승

용차 이용자 또한 19.7%로 나타났다(통계청, 1995 2% 표본자료).

2) 주거형태

서구에서는 공동육아와 공동 가사작업을 위한 협동주택(cohousing)이 맞벌이 가족을 위한 주거 형태로 호응을 얻고 있다(McCamat, Kathryn and Durett, Chales, 1994).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수정확대 가족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면도 있다(홍형욱, 1998).

3) 주거공간계획

취업주부는 가족생활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주택을 원하며, 단순한 실내장식이나 가구를 선호하며, 가사 공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유무에 따라 주부의 주거양식이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선경, 1993). 가사공간인 부엌은 특히 취업주부들에게 가사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가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단란, 독서, 취미생활, 가계부 정리 등 이들의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고, 다른 공간과 잘 연결이 되어있어 가족 모두가 가사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의 배치와 치수가 주부의 인체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환경적 미를 지닐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혼주와 김정국(1996)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엌공간으로 식당 겸용 부엌, 거실-식당 겸용 부엌, 다용도 부엌(utility kitchen)을 제시하여 가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엌의 계획방향을 모색하였다.

일본 도쿄 가스의 O-zone의 맞벌이 가족을 위한 기능적 공동 공간의 예를 보면(홍형욱, 1998), 2400*1000mm 크기의 대형 테이블에 얇은 서랍을 달아 수납을 하고 식탁 아랫부분에 땅 바구니를 넣을 수 있는 선반을 달고, 그 테이블에서 먹고, 다림

질하고, 공부하고, 신문보고, 차를 마시고 하는 등의 가족 단란 활동이 모두 일어나도록 계획하였다. 한쪽에 있는 부엌은 거실에 개방되어 있고 세탁장도 부엌 옆에 있어서 가사작업과 가족 단란이 일체화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주거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업주부와 전일 근무 취업주부로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주부의 생활시간과 생활내용에 영향을 주므로, 가사노동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부로 제한하였다. 1998년 10월 8일에서 10월 16일까지 설문지 220부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W초등학교 등에 배부하여 19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전업주부 101명, 취업주부 90명, 총 191명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설문구성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특성, 취업주부의 취업동기와 가사일 및 육아문제, 주거지역과 지역시설, 주거유형에 대한 요구, 주택규모와 공간에 대한 요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지역과 시설에 대한 요구는 주거지역환경에 대한 요구 10문항과 지역시설 필요정도 측정문항 16개로 구성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아주 중요하다(3점)'의 3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요구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주거유형은 7가지의 주택형을 제시하고 3가지유형을 순위에 따라 선택하게 한 다음 분석과정에서 1순위(3점)에서 3순위(1점)의 점수

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각 실의 규모 및 계획시 중요도에 순위를 1에서 5까지 표시하게 한 후, 1순위 5점에서부터 5순위 1점의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인 사항과 주택 특성 등은 기술적인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과 χ^2 검증을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IV. 조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 가족과 전업주부 가족으로 제한하여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특성, 주택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주부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편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주부의 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이 과반수 이상(61.1%)을 차지하였고, 남편의 직업은 행정·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 모두가 고졸이상이었으며, 특히 남편의 학력은 90%정도가 대졸이상이다. 월평균 수입에 있어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200만원 이하가 86.4%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가족의 경우 남편의 수입은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을 보면, 가족형태에 있어서 취업주부가족은 전업주부 가족에 비해 3대 가족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에 있어서는 한자녀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막내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 때문에 13세까지의 연령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가족 특성

항 목	구 분	취업주부(n=90)		전업주부(n=101)	
		주부	남편	주부	남편
연 령	20-30세 미만	3(3.3%)	2(2.2%)	-	-
	30-40세 미만	53(58.9%)	35(38.9%)	62(62.0%)	28(27.7%)
	40-50세 미만	34(37.8%)	52(57.8%)	37(37.0%)	68(67.3%)
	50세 이상	-	1(1.1%)	1(1.0%)	5(5.0%)
	계	90(100%)	90(100%)	100(100%)	101(100%)
직 업	전문직·기술직	55(61.1%)	30(33.3%)	-	35(34.7%)
	행정직·사무직	14(15.6%)	46(51.1%)	-	45(44.6%)
	판매직·서비스직	14(15.6%)	7(7.8%)	-	13(12.9%)
	생산직	1(1.1%)	4(4.4%)	-	2(2.0%)
	주부·기타	6(6.7%)	3(3.3%)	101(100%)	6(5.9%)
계	90(100%)	90(100%)	101(100%)	101(100%)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10(11.1%)	3(3.3%)	18(19.1%)	9(8.9%)
	2년제대졸·대학중퇴	11(12.2%)	5(5.6%)	6(6.4%)	4(4.0%)
	4년제 대졸	47(52.2%)	55(61.1%)	61(64.9%)	58(57.4%)
	대학원졸	22(24.4%)	27(30.0%)	9(9.6%)	30(29.7%)
	계	90(100%)	90(100%)	94(100%)	101(100%)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	21(25.9%)	1(1.1%)	1(1.0%)	
	100만원-200만원미만	49(60.5%)	29(32.2%)	13(13.2%)	
	200만원-300만원미만	9(11.1%)	34(37.8%)	29(29.6%)	
	300만원-400만원미만	1(1.2%)	16(17.8%)	29(29.6%)	
	400만원-500만원미만	1(1.2%)	7(7.8%)	13(13.2%)	
	500만원 이상	-	3(3.3%)	13(13.2%)	
계	81(100%)	90(100%)	98(100%)		
가족형태	부부+자녀	69(74.2%)		96(95.0%)	
	시부모+부부+자녀	14(15.1%)		5(5.0%)	
	친정부모+부부+자녀	3(3.2%)		-	
	부부+자녀+시댁친척	4(4.3%)		-	
	계	90(100%)		101(100%)	
자녀 수	1명	18(20.0%)		5(5.0%)	
	2명	64(61.1%)		78(77.2%)	
	3명	7(7.8%)		15(14.8%)	
	4명	1(1.1%)		3(3.0%)	
	계	90(100%)		101(100%)	
막내자녀연령	0-3	5(5.5%)		4(4.0%)	
	4-7	28(31.2%)		33(33.0%)	
	8-10	30(33.3%)		32(32.0%)	
	11-13	27(30.0%)		31(31.0%)	
	계	90(100%)		101(100%)	

무응답 제외

조사대상자의 주택유형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가족 모두에서 9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규모는 25평 이상의 중·대규모가 많았으며, 주

택규모에 따른 방의 수는 3개가 가장 많았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주택 특성

항목	구분	취업주부 (n=90)	전업주부 (n=101)
주택 유형	아파트	83(92.2%)	98(97.0%)
	연립주택	1(1.1%)	1(1.0%)
	단독주택	4(4.4%)	2(2.0%)
	기타	2(2.2%)	-
	계	90(100%)	101(100%)
소유 형태	자	60(66.7%)	81(80.2%)
	전	30(33.3%)	20(19.8%)
	계	90(100%)	101(100%)
규모	25평 미만	10(11.2%)	5(5.0%)
	25-35평 미만	31(34.9%)	27(26.7%)
	35-45평 미만	35(39.3%)	42(41.6%)
	45평 이상	13(14.5%)	27(26.7%)
	계	89(100%)	101(100%)
방수	1개	1(1.1%)	-
	2개	25(28.1%)	23(22.8%)
	3개	48(53.9%)	49(48.5%)
	4개	15(16.9%)	26(25.7%)
	5개 이상	-	3(3.0%)
	계	89(100%)	101(100%)

무응답 제외

2.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거지역과 지역시설에 대한 요구의 차이

주거지 선택동기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학교·육아시설과의 거리,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 방범문제였고 쾌적한 외부환경도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주거지 선택은 자녀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거외부환경의 쾌적성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표 3).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간의 차이를 보여준 주거지역 선택동기는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자녀를 돌봐줄 친지와와의 거리로,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보다는 본인의 직장과의 거리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는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해, 취업주부의 경우 부모님 세대와 따로 거주하면서도 자녀를 맡길만한 거리에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3세 태아의 경우, 혈연자에 의해 양육될때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양육자의 변경회수가 적고 혈연이라는 사실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 해석된다(이정희, 1994).

또한 자녀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건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즉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

〈표 3〉 주거지 선택동기

주거지 선택동기	취업주부(평균)	전업주부(평균)	t값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	2.41	2.65	-3.05**
본인의 직장과의 거리	2.67	-	-
자녀의 학교 또는 육아시설과의 거리	2.97	2.91	1.28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2.44	2.46	-1.35
쇼핑센터 등의 편의시설 이용 용이성	2.01	2.23	-2.81
자녀를 돌봐줄 친지와와의 거리	2.33	1.60	6.76***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	2.91	2.95	-1.04
쾌적하고 전원적인 외부환경	2.78	2.87	-1.53
방범이 잘되어 범죄불안감이 적은 곳	2.83	2.89	-1.11
투자 가치가 있는 곳	2.34	2.24	1.21

p < 0.01 *p < 0.001

· 이 표의 점수는 중요도를 1, 2, 3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한 것임.

고,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취업주부가족의 경우 단순한 보호의 측면에서의 탁아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녀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주거환경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되는 주거지역의 시설을 알아 본 결과, 교육 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 순위로 병원, 약국, 은행들을 들고 있었다(표 4).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취업주부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24시간 식료품점이나 24시간 세탁소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사노동 사회화정도가 낮고, 취업주부의 가사대체 용역에 대한 수준도 낮기 때문(임혜경, 1994)에 나타난 결과로 사회 통념상 가사일은 주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시간압박을 받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절약형 비내구재(편의식품)보다는 시간절약형 내구재의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민수, 1993). 취업주부의 구매 패턴 연구결과를 보면 취업주부는 자주 쇼핑하기 보다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일괄구매의 패턴을 보이며(현소은, 1997; 이정국, 1992), 시장보다는 수퍼마켓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소은, 1997). 가사노동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스스로 사용함으로써(윤미림·이기영, 1995)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시간 편의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의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비싼 가격은 취업주부가 취업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숙재·김혜연, 1995).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에 차이를 보인 시설은 방과 후 숙제를 도와주는 공부방과 24시간 놀이방으로 자녀 교육 및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어서 낮시간 동안의 주부 부재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교육

<표 4> 주거지역 시설의 요구

주거지역 시설	취업주부(평균)	전업주부(평균)	t값
음식점	1.61	1.72	-1.29
저장식품 등 반찬전문점	1.58	1.45	1.50
24시간 식료품점	1.52	1.49	.38
24시간 세탁소	1.48	1.38	1.19
전문화된 청소대행업체	1.33	1.36	-.30
수퍼/상가	2.52	2.60	-.995
사설학원	2.26	2.31	-.65
방과후 숙제를 도와주는 공부방	2.09	1.80	2.66**
공동 독서실	2.28	2.36	-.84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2.88	2.87	.114
24시간 놀이방	1.79	1.44	3.68***
놀이터	2.53	2.40	1.43
노인정	1.71	1.68	.30
종합체육시설	2.39	2.49	-1.23
병원	2.70	2.72	-.337
약국	2.62	2.52	1.39
은행	2.58	2.86	-.87
우체국	2.18	2.17	.09

p < 0.01 *p < 0.001

· 이 표의 점수는 중요도를 1, 2, 3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한 것임.

〈표 5〉 희망 주거지역

항목	조사대상	취업주부 (n=90)	전업주부 (n=101)	χ^2 검정
대도시 중심지역		6(6.7%)	5(5.0%)	$\chi^2=4.39$ df=2 N.S.
도시내 주택단지		58(64.3%)	63(63.0%)	
도시근교		26(29.0%)	32(32.0%)	
계		90(100%)	100(100%)	

N.S. not significant

시설이 요구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양육자와 교육시설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령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요구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희망주거지역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도시 중심지역보다는 도시 내 주택단지를 가장 선호하였다(표 5참조). 전명진(1996)의 연구에서도 전체 표본의 80%가 도시가구가 주거를 비중심지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희망하는 주거 유형(표 6)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희망하는 유형은 동호인 주택단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관계가 요구되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

〈표 6〉 희망 주거 유형

주거유형	조사대상	취업주부	전업주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2.22	2.08
300-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		0.7	0.89
연립주택		0.095	0.06
단독주택		0.78	0.90
3세대 동거형 주택		0.33	0.40
오피스텔		0.50	0.51
동호인 주택단지		1.18	1.14

이 표의 점수는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것임.

부의 주택유형 선호 순위는 같았으나, 취업주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교할 때 중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3.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택규모와 주거공간 요구의 차이

희망주택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 큰 평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 조사대상자의 취업주부는 35-45평 미만의 규모를, 그리고 전업주부는 45-55평 미만의 규모

〈표 7〉 희망 주택규모와 방의 수

항목	취업주부(n=90)	전업주부(n=101)	mean	t값	
규모	25-35평 미만	11(12.2%)	6(6.0%)	41.09	-3.415**
	35-45평 미만	42(46.7%)	30(30.0%)	(취업)	
	45-55평 미만	33(36.7%)	47(47.0%)	45.26	
	55평 이상	4(4.4%)	17(17.0%)	(전업)	
	계	90(100%)	100(100%)		
방의 수	2개	-	1(1.0%)	3.83	-1.941 N.S.
	3개	25(27.8%)	20(20.0%)	(취업)	
	4개	55(61.1%)	58(58.0%)	4.03	
	5개 이상	10(11.1%)	20(20.0%)	(전업)	
	계	90(100%)	100(100%)		

무응답 제외

**p < 0.01

N.S. not significant

〈표 8〉 실내공간에 대한 요구

구분 항목	실크기에 대한 요구		계획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안 방	1.77	1.63	1.66	1.46
자 녀 방	3.52	3.35	3.54	3.29
부 욕	3.03	3.37	3.40	3.67
거 실	3.50	3.29	3.08	3.08
수납공간	3.14	3.15	3.25	3.30
기 타	0.1	-	0.04	0.18

· 이 표의 점수는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것임.

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규모의 평균 평수는 취업주부 41.09평, 전업주부 45.26평으로 두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여진다. 필요한 방의 갯수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방 4개를 원했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가족 모두 가족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나 공간기능상의 문제로 4개 정도의 방을 원하나,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의 경우 공간을 좀더 효율적이고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실내공간별로 현재보다 더 크게 계획되기를 원하는 순서와 공간의 계획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는 개인공간보다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납공간에 대한 관심도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8). 실크기에 대한 요구를 보면, 취업주부는 자녀방과 거실이 좀더 크게 계획되기를,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방과 부엌이 크게 계획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엌이용시간이 길어 취업주부에 비해 부엌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간계획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에 대해서 취업주부는 자녀방과 부엌, 수납공간의 순서로, 전업주부는 부엌과, 수납공간, 자녀방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점수에 차이가 보여지는 공간은 자녀방과 부엌으로 취업주부는

자녀방을, 전업주부는 부엌을 더 고려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공간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전업주부에게서 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가사일의 중심공간인 부엌은 부엌+식사실형(DK)과 부엌+식사실+거실(LDK)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부엌내 식사실을 두는 형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표 9). 부엌을 따로 독립시키는 방안은 전업주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주부는 부엌을 전업주부보다 덜 중요시하며(표 8), 부엌이 독립되기보다는 가족공동의 공간과 함께 계획됨으로써 가사작업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상호작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원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볼 때, 취업주부는 주거생활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을 중요시하며, 부엌작업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상호작용하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선경(1993)의 연구에서도 취업

〈표 9〉 희망 부엌 공간의 유형

부엌의 위치	취업주부 (n=90)	전업주부 (n=101)	χ^2 값
독립된 부엌	14(16.3%)	21(21.0%)	$\chi^2 = 1.304$ df=3 N.S.
부엌+식사실	31(36.0%)	36(36.0%)	
부엌+식사실+거실	27(31.4%)	25(25.0%)	
기 타	14(16.3%)	18(18.0%)	
계	86(100%)	100(100%)	

무응답 제외
N.S. not significant

〈표 10〉 가사일 공간의 계획요구

가사일 공간의 계획요소	취업주부 (n=90)	전업주부 (n=101)	χ^2 값
부엌에 세탁설비를 둠	32(35.6%)	39(39.8%)	$\chi^2=1.629$ df=2 N.S.
부엌과 세탁공간 분리	35(41.2%)	42(42.8%)	
기 타	18(21.2%)	17(17.3%)	
계	90(100%)	98(100%)	

무응답 제외

†부엌에 주부의 사무공간을 두는 의견이 많았음.

N.S. not significant

주부의 경우, 가정일을 하면서도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도 가사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과 연결이 잘 된 부엌 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사 공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주택을 원하였다.

가사일 공간 계획에 대한 요구는 〈표 10〉과 같다. 가사일에 관련된 식기 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다림질대 등의 가전제품을 갖추고 세탁기능을 함께 하는 부엌과, 세탁공간이 분리된 공간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과 지역시설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자녀와 관련된 환경조건이 크게 부각되었다. 주거지 선택동기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학교·육아시설과의 거리, 자녀가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외부환경이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특히 취업주부가족의 경우 단순한 보호의 측면에서의 탁아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녀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주거환경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간에 차이를 보인 시설은 방과 후 숙제를 도와주는 공부방과 24시간 놀이방으로 낮시간 동안

의 주부 부재시 자녀를 관리해주고 돌볼 수 있는 교육시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주거단지계획은 자녀를 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택규모와 공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더 큰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전업주부는 취업주부보다 크거나 계획 면에서 부엌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주부의 경우는 거실이 넓게 계획되기를 원하고 있어 가족공동 공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해 부엌을 따로 독립시키기를 더 원하였고, LDK형을 덜 선호하였다. 이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비교적 적은 취업주부는 LDK형의 개방적인 실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집에 있는 시간동안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사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의 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주거공간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선경(1993).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계획 연구- 은행 사무직 취업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생활학과 석사 학위 논문.
- 2)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 전담 전일제 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상명여대 사회과학 연구. 제7호, pp.297-319.
- 3) 문숙재(1996). 생활시간 연구. 학지사.
- 4)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취업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6호, pp.73-88.
- 5) 윤미림·이기영(1995). 취업주부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관리전략.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 20권, pp.11-20.
- 6) 이기영 외 3인(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 생활시간 비교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14권 4호. pp.145-161.
- 7) 이미선·이정우(1997). 전문·사무직 취업 주부의 가사노동 관리 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pp.201-215
- 8) 이민수(1993). 주부의 취업 및 시간압박이 시간 절약 상품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9) 이훈주·김정국(1996). 맞벌이 부부를 위한 System Kitchen에 관한 연구. 삼척산업대 논문집. 29권 3호. pp.457-484
- 10)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가사노동 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11) 장영애(1996). 인천지역 취업모의 탁아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21호. pp.65-87.
- 12) 전명진(1996). 맞벌이 가계의 주거 및 직장 선택과 통근행태에서의 성별차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84. pp.111-123.
- 13)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 절약 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4) 채옥희(1997).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호. pp.13-26.
- 15) 통계청(1996). 1996 한국의 사회지표.
- 16)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17) 한국 여성 개발원(1997).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통계청.
- 18) 한국여성단체 협의회(1990). 전문직·사무직 취업모의 탁아실태에 관한 조사.
- 19) 현소은(1997).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마케팅. 344호. pp.79-82.
- 20) Gerald A. Bird, Savannah Day, Mariyn Cavell (1990. 9).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Single- and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9, No.1. pp.29-37.
- 21) Janice Fanning Madden (1981). Why women work closer to home. *Urban Studies*. Vol.18. pp.181-193.
- 22) JoAnn D. Engelbrecht and Joyce I. Nies (Spring 1988). Work/Family interaction: trend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80, No.1. pp.23-28.
- 23) Se-Jeong Yang, Frances M. Magrabi (1989,12)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8, No.2. pp.133-147.